



음식을 소재로 한 시집을 펴낸 송수권 시인이 지난달 28일 남광주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서대화무침을 먹으며, 시와 남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詩와 남도음식 만나 맛깔난 글 한상 차렸네

■ 송수권 시집 '남도의 밤 식탁' 출간

삼합·참꼬막·주꾸미 등 음식과 사투리서 시의 서정성 찾아

사람은 늙어도 시는 마냥 청년이더라. 벌교 참꼬막처럼 달큰한 전라도 음식을 새 시집 '남도의 밤 식탁'(작가)에 담았기에 인터뷰는 식당에서 밥 먹으며 하자고 하니, 시인 송수권(71)은 절절히 웃었다. 지난달 28일 여수 서대에 갇은 야채 버무리고, 아낌없이 '행병'(그는 식초병을 꼭 전라도 사투리로 쓴다)을 흔들어 식초를 치는 광주 남광주시장 독량집에서 만나자고 하니 시인은 "좋지, 좋아"라며 입맛부터 다셨다.

막걸리 한 잔 걸친 뒤 쏟아낸 그의 말은 주꾸미 대가리를 씹을 때마다 톡톡 알이 터지듯 구수했다. '남도의 밤 식탁'에는 고향 고흥과 목포, 벌교 등지에서 그가 직접 맛 본 삼합, 참꼬막, 주꾸미회, 광양 숯불구이 등 남도 음식의 맛과 멋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왜 시집의 주제가 음식인가는 질문에,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 이야기부터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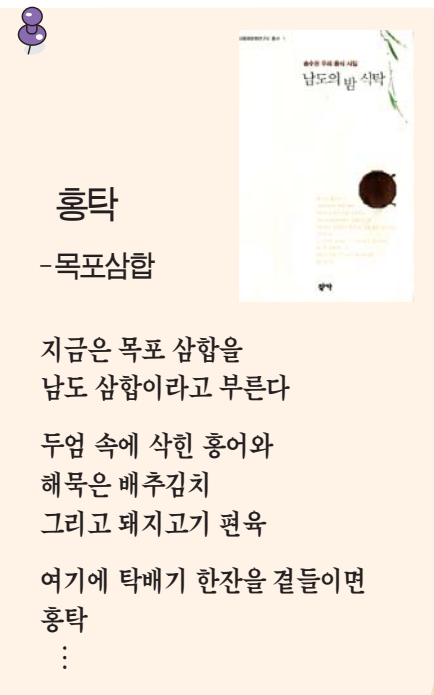
"아이들이 햄버거만 먹고 우리 음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몸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고, 상에 차리는 과정

속에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또 대뜸 "'소반다듬이'가 뭐지 아냐?"고 물었고, 대답도 이 시집에 담긴 시 '소반다듬이'로 대신해줬다.

"왜 이리 좋으냐/ 소반다듬이, 우리 텃밭/ 개다리 모자 하나를 덧써우니/ 개다리소반상이라는 눈물나는 말/쥐눈이를 넣어놓고 씹은 콩 무른 콩을 골라내던/ 어머니 손/~-시인이 된 지금도 쥐눈이처럼 쥐눈을 뜨고/소반상 위에서 밤새워 쓴 시를 다듬어질하면/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우리말~"

음식은 그릇과 상 등 먹는 행위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냈고, 우리의 일상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우리 음식이 사라지면 음식과 관련된 우리말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시집에는 질관한 사투리가 여과 없이 담겨 있다. '대도통태'(대 조각으로 만든 굴렁쇠), '송악한 맛'(깊은맛), '들척지근'(달고 시큼한), '통시'(화장실), '사삭 찔다' '이무렵다' 등의 시어는 더욱 시집을 맛깔스럽게 해준다.



홍탁

-목포삼합

지금은 목포 삼합을 남도 삼합이라고 부른다

두엄 속에 삭힌 홍어와 해묵은 배추김치 그리고 돼지고기 편육

여기에 탁배기 한잔을 곁들이면

홍탁

...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현대시에 대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벌교 참꼬막집에 갔어요/~-현대시란 책상물림으로 퍼즐게임 하는 거 아니래요/ 그건 고양이 가 재밌날 밤 참꼬막을 깔 줄 모르니/ 앞발로 어르며 공깃돌놀이 하는 거래요/ 詩도 그들이 있는 詩를 쓰라고 또 똥을 맞았지요"-'똥' 중에서

현대시에서 서정성이 결여되다 보니 깊은 사색 없는 말 장난에 그치고 있고, 감동과 여운(그늘)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는 노래입니다. 최근 현대시가 노래의 체계에서 비평의 체계로 넘어가다 보니 어려워진 것입니다. 시 한 줄이 1000억 원보다 소중해요. 짧은 시인들이 시의 의미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이번 시집을 통해 시의 서정성을 음식과 사라져가는 사투리에서 찾고 있다. 또 이번 시집 준비를 위해 그는 '한국풍류문화연구소'를 만들기도 했다. 이 연구소는 남도의 풍류를 찾고 보존하며, 소재원 등지에서 풍류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다음에 출간할 책도 한국 풍류를 소재로 쓸 것입니다. 이번 시집은 '해마는 서서 잠든다' '남도 풍류의 맥을 찾아서' 등의 책으로 이어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아내를 위해 남광주시장에서 새조개래도 사가겠다는 시인의 뒤통수는 남도의 저녁 밥상처럼 풍성하기만 했다.

한편 1975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산문에 기대어'가 당선돼 등단한 그는 소설문학상, 정기문학상, 영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언 땅에 조선 매화 한 그루 심고' 등 시집, '남도의 맛과 멋' '아내의 맨발' 등의 산문집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2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

문화재단, 20개 작품 선정... 29일 첫 공연

광주문화재단은 5일 2012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 기획공연 무대에 오를 20개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문화재단은 47개 접수 작품 중 서류심사를 거친 35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28일 심사를 진행, 20개 작품을 선정했다.

빛고를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공연은 옛 전남도체육회관 5층 소공연장 무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부터 6개 작품을 시범운영했다.

올해는 29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총 20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무료대관, 장비·기계·시설 운용인력 및 안내도우미, 홍보물 제작, 식대비 등이 지원된다.

선정작은 ▲전통국악예술단 놀음판의 '국악 새로이 날다' ▲아카펠라

그룹 민트 블루스의 '체험이 있는 아카펠라' ▲무지개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회 ▲M댄스아카데미 '아이리브라틴! 라틴걸' ▲홀츠하임 목관 5중주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여행 ▲베이스스 플루트 앙상블 ▲조현영 피아노독주회 '소통과 교감' ▲Le son 사중주단 창단연주회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김주희 동편제 발표회 ▲서석골 메아리 정기공연 '나의 노래' ▲박영렬 재즈 퀸텟 공연 '뷰티풀 러브' ▲도자타악퍼포먼스 '천상의 울림' ▲앙상블 루미나시아와 함께 풀어가 는 지금도 모차르트같은 음악가가 있나요? ▲극단 소울리츠 '해설이 있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소프라노 유형민 독주회 '일곱가지 죽을 죄' ▲선미숙·이지선의 소리 이야기 '음담' ▲조애란 작품발표회 ▲예향실내악단 연주회 '가을밤의 클래식 음악 산책'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아암 환우 희망의 응원 나선다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 정기연주회 오늘 금호아트홀

'소아암 환자들에게 사랑음...'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단장 박문경) 제9회 정기연주회가 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소아암 환우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요하네스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요아힘 라프의 '카바티나' 등이다.

김현정·석민정·윤소희·박효은·봉수경·유순아·김희경·이후성·김화은·김태은·김민수·장연주씨 등이 출연하며 피아노 반주는 유병규씨가 맡는다.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씨가 찬조출연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첼리스트들'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 필로스 첼리스트'은 지난 2002년 결성 이후 지금까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아이티 재난 구호 기금 마련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연주회를 열어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국에 전하는 한국 전통향기

강봉규 개인전, 30일까지 런던 목스페이스

토속적인 색깔으로 남도의 자연과 사람을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는 원로사진작가 강봉규씨가 오는 30일까지 영국 런던 목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Nostalgia of Korea, Korean'을 주제로 한국의 서정적인 감성과 전통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2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 특유의 겸상 문화, 청학동 풍경, 징검다리, 햇살 어린 고삿길(골목길)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겼다. 잊혀져가는 한국 전통 문화를 흑백화면에 표현했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노인들의 얼굴도 정겹게 표현했다.

1979년 첫번째 개인전을 가진 그는 서울과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과 초대전을 9회 열었으며 '강봉규 사진집', '한국인의 얼굴', '달과 바람과 나무가 있는 집', '지구촌 사람' 등의 사진집을 펴냈다. 1980년 한국 사진문화상, 1996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00년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다.



'죽두리'

현재 담양 고서면에 '명지원'이라는 한옥을 짓고 국전 초대작가, 전라남도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룸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별정 서비스포드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키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